

HEADLINE NEWS

도심 중심가로 미화프로젝트 추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市)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市는 도심의 중심가로인 Canal Street의 미화(美化)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180억원 규모의 이 확정안에 따라 Canal Street는 市를 대표할 수 있는 보행자 위주의 쇼핑거리, 다양한 오락 및 문화의 중심거리, 24시간 지속되는 만남의 거리로 재건된다. 市는 보행로의 확장과 정비, 보도블록 교체, 가로수 조성, 조명시설 확충 등의 공사를 위해 올 6월에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18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市는 Canal Street 복구 및 미화계획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재개발이 파급될 수 있도록 수백억 규모의 민간자본을 모집할 예정이다. 市는 장기적으로 Canal Street 주변의 낙후된 공동주거단지를 재개발하여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의 병원 주변에는 의료서비스센터, 그리고 고급 쇼핑센터와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전체의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www.smartgrowth.org/news/article.asp?art=3885&state=19)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세계도시들의 삶의 질 평가: 취리히와 제네바가 1위 (런던)
- ②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으로 도시활성화 추진 (영국: 애버딘)
- ③ 주거단지 출입을 통제하는 문을 설치한 'Gate Community' 문제점 발표 (글래스고)

도시환경

- ④ 하수처리장 명칭을 '물재생센터'로 변경 (동경)
- ⑤ 자동차 배출물질 총량저감시책 추진 (동경)
- ⑥ 주택개발시 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화 에든버러

도시교통

- ⑦ '응급차량 통행시 일반운전자의 양보방법' 홍보캠페인 실시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市)
- ⑧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장점을 결합한 'RUF(Rapid Urban Flexible) 교통시스템' 도입 (코펜하겐/캘커타)
- ⑨ 미나토미라이선 개통을 통해 도시활성화 도모 (요코하마)

사회복지·문화

- ⑩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상담사업」 실시 (동경)
- ⑪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학교안전계획 발표 (뉴욕)
- ⑫ 건강한 인간상 육성을 위한 청소년계획 수립 요코하마

행재정

- ⑬ 지방정부와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자간 도로 지하매설물 공동관리 협약 체결 (뉴질랜드: 웰링턴)

① 세계도시들의 삶의 질 평가: 취리히와 제네바가 1위 (런던)

최근 영국의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Mercer Resource Consulting'社は 정치, 경제, 환경, 건강, 교육, 공공서비스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여 세계 215개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뉴욕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스위스의 취리히와 제네바가 106.5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유럽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들이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했고, 미국 도시들은 출입국 보안검색 강화로 불편이 가중되면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져 호놀룰루와 샌프란시스코가 24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이라크의 바그다드는 총점 14.5로 삶의 질이 가장 낮은 도시(215위)로 평가되었다. 일본은 東京 33위, 요코하마 35위, 고베 38위, 오사카 44위로 4개 도시가 상위 50위 안에 들었으나, 한국의 도시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위 50위 도시들의 명단은 인터넷 (www.mercerHR.com/qo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39개 요인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39개의 평가요소는 다음의 9개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 ① 소비재: 식료품과 일상 생활용품의 획득 가능성 정도, 자동차 등
- ② 경제환경: 통화 환전에 대한 규제, 은행서비스 등
- ③ 의료 및 건강: 의료시설 및 약품 공급, 의료 서비스, 전염성 질병, 하수 시설,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등
- ④ 자연환경: 기후, 자연재해기록 등
- ⑤ 정치와 사회 환경: 정치적 안정, 범죄, 법집행 등
- ⑥ 공공서비스 및 교통: 전기, 상수도, 대중교통, 교통혼잡 등
- ⑦ 휴양(recreation): 음식점, 극장, 영화관, 스포츠, 여가 등
- ⑧ 학교와 교육: 학교의 수준, 학교 접근 가능성 정도 등
- ⑨ 사회문화 환경: 검열, 개인자유 제한 등

(www.mer.../1128760;jsessionid=H4YROAJNIUITWCIHAEEQOCAKMZSI4I2)

②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으로 도시활성화 추진 (영국: 애버딘)

영국 애버딘(Aberdeen)시는 최근 도시센터를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21,000,000파운드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도시센터에 위치한 역사적인 지역인 Union Street를 부분적으로 보행자 전용화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 및 도시상업 활성화 등 경제적인 효과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보행자 전용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센터의 교통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이를 기초로 기존의 거리를 넓히고, 분리된 양방향 도로체계와 도로의 교통신호체계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 시는 기존의 도로체계와 거리를 재정비하는 노력을 통해 Union Street를 보행자 전용화시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Planning, 2004. 3. 5)

③ 주거단지 출입을 통제하는 문을 설치한 ‘Gate Community’ 의 문제점 발표 (글래스고)

최근 영국의 ‘Office for Deputy Prime Minister’는 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주거단지의 출입을 통제하는 문을 설치한 곳에 사는 사람은 주변 커뮤니티와의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회활동 정도 또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를 수행한 글래스고(Glasgow) 대학과 셰필드 할렘 대학은 잉글랜드 지역의 ‘게이트 커뮤니티(Gate Community)’ 개발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결과, 약 1천개의 게이트 커뮤니티 개발이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약 1/3은 잉글랜드 남동부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발 양상은 지금 영국에서 진행중인 ‘지속가능한 커뮤니티(Sustainable Communities)’ 개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자는 게이트 커뮤니티가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변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발업자들이 안전과 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게이트 커뮤니티를 선전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Regeneration & Renewal, 2003. 12. 5)

4] 하수처리장 명칭을 ‘물재생센터’로 변경 (동경)

최근 일본 東京都는 都内 하수처리장 20개소의 명칭을 ‘물재생(水再生)센터’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하여 물재생센터의 특징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풍요로운 녹지가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都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과 환경학습,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www.metro.tokyo.jp/INET/EVENT/2004/03/21e3j300.htm)

5] 자동차 배출물질 총량저감시책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의 총량 저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자동차 NOx·PM법)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에 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都는 본 계획안에서 계획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 제시와 함께, 중앙정부가 시행한 배출가스 규제 시험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중앙정부의 디젤차대책 지연을 지적했다. 都는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 저감시책 추진을 통해 2010년까지 都内 전체 측정지역 모두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4/03/70e3j100.htm)

6] 주택개발시 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화 (에든버러)

영국 에든버러(Edinburgh)市는 2006년까지 쓰레기 재활용 비율을 27%로 올리기 위한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市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거지 개발시 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市의 도시계획가들은 주거지 개발자를 위한 재활용시설 설치안내 지침서를 준비중인데, 이는 시민들이 주거지역에서 재활용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市는 거리에도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함을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다. (Planning, 2004. 3. 5)

7 '응급차량 통행시 일반운전자의 양보방법' 홍보캠페인 실시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Wilmington)시는 응급차량 통행시 일반운전자의 양보를 촉구하고, 양보방법을 알려주는 홍보캠페인을 최근 시작했다. 「See the light, pull to the right」이라는 이 캠페인은 응급차량을 만났을 때 일반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도로의 오른쪽에 잠시 정차하여 응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일반운전자가 응급차량을 만났을 경우 당황하여 올바르게 양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현재 양보방법이 안내된 소책자를 상가 및 사업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

(www.wilmingtonstar.com/apps/pbcs.dll/article?AID=/20040220/NEWS/202200369/1004/LOCAL)

8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장점을 결합한 'RUF(Rapid Urban Flexible) 교통시스템' 도입 (코펜하겐/캘커타)

오늘날 대중교통시스템은 환경에 더 유익하고, 자가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자가용은 공해유발과 심각한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 2가지 교통수단의 장점만을 결합한 것이 'RUF 교통시스템(Rapid Urban Flexible Transport System)'이다. 저렴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대중교통수단인 'RUF 교통시스템'은 현재 세계 전역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Using the Rapid Urban Flexible transport system, vehicles heading into major cities would have the option of driving directly from road to monorail

☞ 6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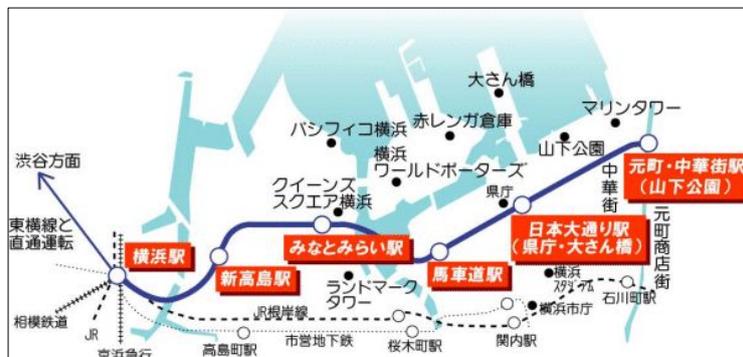
5면서 계속

덴마크의 발명가 Palle R. Jensen이 고안한 이 시스템은 일반도로와 철도에서 모두 운행 가능한 바퀴를 장착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동차 하단에는 레일에서 전기를 끌어당길 수 있는 A자형 스롯이 설계되어 모노레일 위와 일반도로에서 모두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교통혼잡과 자동차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의 캘커타市는 곧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하여 그 효과를 시험할 계획이다. 인도의 'Srei International'社는 市内 50km 정도 구간에 'RUF 교통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완료했으며, 이 시스템이 도심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cphpost.sites.itera.dk/data/217331/155/0709newspaper.pdf)

9 미나토미라이線 개통을 통해 도시활성화 도모 (요코하마)

1991년에 공사를 시작한 일본 요코하마市의 미나토미라이線이 최근 개통되었다. 이 노선은 토큐토요코(東急東横)線과의 상호직통연결 운행에 의해 東京 시부야에서 요코하마市 모토마찌(元町)·중화가(中華街)까지 35분에 운행한다(도면 참조). 이에 따라 토큐토요코線의 사쿠라키초驛~요코하마驛은 폐지되고, 요코하마驛~히가시하쿠라쿠(東白樂)驛간은 지하화되었다. 市는 토큐토요코線의 지하화에 따른 폐노선을 산책로로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통을 계기로 지역단체, 교통기관, 행정관련기관 등이 함께 '도심부 활성화 연락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심의 매력을 수도권 및 전국에 알리는 등 본격적인 도시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www.city.yokohama.jp/me/tokei/site/traffic/mm21sen/index.html)

(www.welcome.city.yokohama.jp/mm_line/2000.html)

일본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상담사업」 실시 (동경)

일본 東京都는 2004년도 신규사업의 하나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상담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히키코모리는 전국적으로 100만명, 都內에만 10만명 정도가 있으며 연령층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히키코모리의 원인은 가족관계, 학교에서의 왕따, 정신적인 문제 등 매우 다양하여 적절한 해결책 제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都는 올해부터 생활문화국을 창구로 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례 수집 및 히키코모리 실태 파악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생활문화국, 복지국, 교육청 등과 전문가 및 都內 기초자치단체, NPO 등이 참여하는 연락 조정회의를 설치하여 행정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터넷 상담은 NPO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올 여름부터 게시판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www.janjan.jp/area/0402/0402171170/1.php)

미국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학교안전계획 발표 (뉴욕)

미국 뉴욕市는 학교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안전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뉴욕경찰의 성공적인 범죄대책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다. 뉴욕경찰은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모든 경찰과 자원을 투입하여 범죄를 발본색원한 후, 다음 문제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다. 市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안전문제도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학교와 학생을 파악한 후, 여기에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문제의 근원을 발본색원한 후에, 다음 학교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다음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문제학교와 지역을 선정할 것: 선정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학교안전요원과 경찰, 학부모, 선생, 상담원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 둘째, 문제학생들을 확인할 것: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학교와 격리 수용시키도록 할 것. 셋째, 정학(停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정학된 학생만을 수용하여 교육시킬 교육기관을 신설할 것 등이다.

(www.lacity.org/mayor/moed/arp/arpab1.htm)

④ 건강한 인간상 육성을 위한 청소년계획 수립 (요코하마)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도 다기화되고 있다. 일본의 요코하마市는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장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체성과 창조성을 가진 인간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청소년 육성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市의 청소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3년 11월에 市의 청소년문제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청소년계획(안)을 정리하였으며, 올해에는 시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7월에 「요코하마市 청소년계획」을 결정·공포할 예정이다.

(www.city.yokohama.jp/me/shimin/seishonen/plan.html)

④ 지방정부와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자간 도로 지하매설물 공동 관리협약 체결 (뉴질랜드: 웰링턴)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지방정부 및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자들간에 도로 지하매설물 관리 및 설치와 관련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New Zealand Utilities Advisory Group'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번 협약은 도로 지하매설 시설물과 관련해서 기술교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는 물론 도로 이용자 및 지역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업자들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도로의 굴착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지침을 설정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향후 바람직한 작업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활용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로 상이한 시설물 관리 및 도로 현장 작업시의 준수사항 관련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www.scoop.co.nz/mason/stories/BU0403/S00051.htm)